

이슈

2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제3071호

‘어벤져스:엔드게임’ 광풍이 시작됐다



‘어벤져스:엔드게임’의 주역들이 24일(한국시간) 미국 LA의 한 극장에서 열린 핸드프린팅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케빈 파이키 마블스튜디오 대표, 크리스 헨스워스(토르), 크리스 에반스(캡틴 아메리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아이언맨), 스칼렛 요한슨(블랙 위도우), 제레미 러너(호크 아이), 마크 러팔로(헐크).

개봉 4시간30분 만에 100만 돌파 ‘불멸의 기록’

마블 세계관 완결편...액션·서사 탄탄
성지 ‘용아맥’ 5월 4일까지 전석 매진
1000만 넘어 아바타 기록 갱지도 주목
관객들 “마블과 함께한 10년 눈물이 나”

“휴가와 개봉일이 겹쳐 일찌감치 예매창 새로고침을 수십 번 눌러 성공했다.”(23·군인)

“중간고사 기간이라 일찍 끝나서 왔다. 앞으로 세 번 더 볼 거다.”(17·여고생)

“어제 새벽 겨우 취소 표를 구했다. 고대 근무를 마치고 후다닥 왔다.”(40·남·직장인)

“개봉일에 보려고 연차를 냈다. ‘어벤져스’의 마지막이라 첫날 보고 싶었다.”(28·남·직장인)

24일 개봉한 ‘어벤져스:엔드게임’(어벤져스4)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 데일 지경이다. 시작부터 ‘광풍’이며 ‘광풍’이다. 블록버스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성지’로 통하는 ‘용아맥’(서울 용산CGV 아이맥스 상영관)에는 개봉 첫날 새벽부터 관객이 구름처럼 몰렸다. 624개 좌석은 회마다 매진. 심지어 25일 오전 2시15분 상영분도 단 2석만 빼고 다 팔렸다. 5월4일까지 ‘용아맥’ 좌석은 구할 수 없다.



‘어벤져스:엔드게임’이 개봉한 24일 오후 서울 용산CGV에서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이 관련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열기는 신기록으로 직결됐다. 이날 상영 시작 4시간30분 만인 오전 11시30분 100만 관객(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돌파했다.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종전 최고 오프닝 기록인 2018년작 ‘신과함께:인과 연’의 124만 명을 단숨에 앞질렀다.

이날 오후 용산CGV에서 만난 최 모 씨(29·여)는 “친구들을 동원해 예매에 성공했다”며 “아이맥스를 봤으니 앞으로 4DX, 2D관에서 한 번씩 더 볼 계획”이라고 했다. 연일 쏟아지는 이슈에 관심이 쏠려 극장을 찾은 관객도 적지 않았다. “외근하고 직장 동료와 함께 3D 버전으로 봤다”는 40대 강 모 씨는 “요즘 여기저기서 ‘어벤져스’를 얘기해 금세 채워졌다”고 말했다.

‘어벤져스4’의 폭발적인 분위기는 어린이 날 연휴가 겹친 5월 첫째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멀티플렉스 극장체인 관계자는 이날 “‘어벤져스’ 2편과 3편에 이어 이번에도 1000만 관객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열풍에 힘입어 관객층이 50~60대로 확대된다면 역대 외화 최고 흥행작인 2009년 ‘아바타’(1348만명)를 넘어 그 이상 기록도 가능하다는 예측이다.

● “영화관에서 다 같이 훌쩍훌쩍”

‘어벤져스4’는 치솟은 대로 치솟은 관객의 기대치에 그대로 부합하는 탁월한 완성도로 그 위용을 드러냈다. 2008년 ‘아이언맨’으로 시작해 햇수로 12년간 22편의 작품

으로 구현한 마블 히어로의 세계관을 집대성 완결편으로 제 몫을 하고 있다. 마블 시리즈에서 활약한 크고 작은 캐릭터들이 한데 모여 절대악 타노스에 맞서 벌이는 후반 대전투는 장엄하기까지 하다.

특히 시간여행 콘셉트를 적용, 과거로 향해 자신들이 거처온 사건을 다시 마주하는 영웅들의 모습은 코믹하면서도 몽환하다. 아버지를 만나는 아이언맨이나 첫사랑과 재회하는 캡틴 아메리카의 모습은, 이들이 판타지의 주인공이 아닌 유려한 역사를 가진 진짜 영웅이라고 말하고 있다. 액션만큼 서사도 강해 상영시간 3시간1분이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

SNS에서 확인되는 관객의 반응 역시 절대적이다. “10점 만점으로 부족하다” “마블의 역사가 주마등처럼 흘러 눈물이 날 지경” “영화관에서 다 같이 훌쩍훌쩍했다”는 반응이 쏟아진다.

수입배급사 측은 스포일러와도 전쟁 중이다. 제작진이 “오리지널 히어로 6명이 이별을 고한다”고 예고한 대로 영화 엔딩은 몽클함과 아쉬움이 뒤섞여 감동을 자아낸다. 알고 보면 재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 아직 보지 않은 팬들은 스포일러를 경계하며 “맛글 보기 금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혜리 기자 go11024@donga.com
용산(서울) |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메이저리그 출신 에릭 번스(가운데)는 23일(한국시간)부터 24일까지 꼬박 24시간 내내 필드를 지키면서 420개 홀을 돌아 세계 신기록을 작성했다.

24시간 동안 420개 홀 ML 출신 번스 기네스新

18홀씩 도는데 평균 1시간도 안걸려

24시간 동안 420개 홀을 도는 필드 위의 무모하면서도 대단한 도전이 완성됐다.

주인공은 메이저리그 외야수 출신 에릭 번스(43·미국).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콜로라도 로키스, 시애틀 마리너스 등에서 활약했던 번스는 23일(한국시간)부터 24일까지 꼬박 24시간 내내 필드를 지키면서 해당 부문 기네스북 신기록을 작성했다. 호주 출신 이안 콜스터가 1971년 24시간 동안 소화한 401개 홀을 가뿐히 넘어서며 위대한 도전을 완성시켰다.

번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프문베이 골프링크스에서 현지시간으로 22일 오전 7시 1분 홀 티샷을 했다. 이어 다음날 새벽 5시31분 402번째 홀을 마치면서 신기록을 썼고, 남은 1시간20분 동안 18개 홀을 더 돌아 420개 홀을 마저 채웠다.

USA투데이를 비롯한 미국 주요 매체는 24일 “번스가 이날 18개 홀씩을 마치기까지 평균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반면 올해 2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오픈에서 J.B. 홉스(37·미국)는 최종라운드 18개 홀을 모두 돌면서 5시간29분이 걸렸다”면서 이날 기록의 대단함을 애둘러 보도했다.

이번 도전은 미국 아동체육 관련 재단인 ‘렛 them 플레이(Let Them Play)’와 손을 잡으면서 이뤄졌다. 기네스북 등재로 이 재단의 나눔 활동이 더 장려되기를 바란다며 취지를 담았다.

클럽 숫자를 최소화한 채 야간에는 조명 속에서 420개 홀을 돈 번스는 “예전에는 클럽 하나로 41분 만에 18개 홀을 돈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환상특급!
바이칼호수 한바이칼 열차와
알혼섬 5일
5월 20일 출발
마중여행사 02-730-2270

박찬호 ‘한만두’ 재현 확률 ‘1200만분의 1’

(한 이닝 만루홈런 두방)

MLB닷컴 ‘한만두 20주년’ 재조명

“99년 타티스 이후 아무도 없어
아마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일”

매년 4월 24일(한국시간)이면 어김없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다. 이제는 20주년이 되는 타이틀까지 붙여버린 코리안 특급 박찬호(46)의 ‘한만두’ 사건이다.

젠 잇을 만 하면 되살아나는 굴욕적인 기억이다.

MLB닷컴도 이날 ‘한 이닝에 두 번의 그랜드슬램?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제목으로 박찬호의 한만두 사건을 재조명했다. “세인트루이스 타티스가 처음으로 한 이닝에 두개의 만루홈런을 쳤다. 더욱 놀랍게도 같은 투수(박찬호)를 상대로 기록한 것”이라며 “이후 아무도 하지 못했다. 아마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데이터 분석가 톰 탱고에 따르면 한만두가 재현될 확률은 1200만분의 1이다. 이에 대해 박찬호 역시 지난해 미국 ‘디 애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다시는 일어나

지 않을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KBO에선 2018년 3월 31일 KT 위즈 벨로하스 주니어와 이해창이 두산 베어스 구원 투수 최대성을 상대로 8회 두 차례의 만루홈런을 터트려 리그 사상 첫 한만두의 진기록을 작성했다. 쉽게 연출되기 힘든 장면이기에 한만두에서 파생된 표현도 찾아볼 수 있다. 2013년 삼성 라이온즈 시절 배영수(현 두산)가 3월 30일 두산과의 시즌 개막전에 선발 등판해 한 경기 동안 두개의 만루홈런을 맞았다. 개막전 한 경기서 한 투수가 만루홈런 두 방을 허용했다는 뜻의 ‘개만두’라는 단어가 탄생했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내가 왜 뚱개?

심약자 클릭 주의



정주리 마사지

●정주리, 마사지
개그우먼 정주리가 SNS 사진을 통해 근황을 알렸다. 얼굴 전체에 하얀 크림을 바른 모습. 정주리는 “남편 쉬는 날이라 세피 말기고 여유롭게 마사지”라고 썼다. 모처럼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는 세 아들 엄마의 모습이

다. 그런데 클릭 후 사진 뚱개 때 심장 후 내려앉는 줄.



김상혁의 피규어

소박한 취미(?)

●김상혁, 피규어 : 클락비의 김상혁이 방송에서 자신이 수집해 온 피규어를 공개했

다. 김상혁은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아내 송다예와 집을 썼는데 300여 개의 피규어가 나온 것. 김상혁은 “제일 비싼 건 1000만 원짜리도 있다”고 말해 송다예의 입이 벌어지게 만들었다. 다 합치면 중형 차 가격이라. 누리꾼들은 “그래도 피규어는 건전한 취미”, “나중에 팔면 은근 돈이 될” 등 긍정적인 반응이다. 베스트 댓글은 이것. “소박하시네요, 우리 남편은 수입 차 값 들어갔는데...”.

올해는 힙이다

●유세윤, 커플문신 : 개그맨 유세윤이 아



유세윤 커플문신

내 황경희씨와의 커플 타투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눈길을 끌었다. 2년 전 결혼 8주년이라 팔(8)에다가 동일한 문양을 새겨 넣었다고. 유세윤은 “올해는 10주년이라서 영당이에다 할 예정입니다”라고 했다. 10은 영당이 힘과 발음이 비슷하다. 결혼 10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인종 사진은 굳이 안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